

스쿨존만이라도 주정차 단속 잘했더라면...

신가동 횡단보도서 6세아 사망...사고 기사 “차에 가려 못 봐”
구청, 전인 직영 후 과태료 부과에 집중...뒷집단속 사고 불리

지난 1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호반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6세 여아 사망사고는 사고를 낸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1차 책임이 돌아가겠지만, 사고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번 사고의 책임은 우리 사회 전체에 몰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만 하지 않았더라면, 불법주차된 차량이 즉시 견인만 됐더라면, 숨진 어린이가 튀어나오는 모습이 좀 더 쉽게 운전자 눈에 띄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하루에도 수백명의 빨간신호등(어린이)이 오가는 스쿨존만이라도 불법주정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시 견인하는 등 행정기관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청은 유치원 통학차량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송모(6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

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께 광산구 신가동 호반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집으로 향하던 A(6)양을 차량 앞 부분으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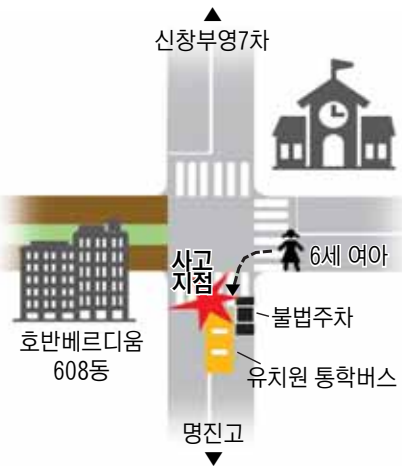
송씨는 스쿨존 구간 전방주시 의무, 횡단보도 정차 의무 등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운행하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 앞을 지나 횡단보도로 뛰어오던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사고 직후 운전자 송씨는 “내 죄가 크다”면서도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달렸지만 횡단보도에 걸쳐 있던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여자아이가 튀어나는 것을 볼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직후 통학차량의 스쿨존 규정속도(시속 30km)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으나 차량에 장착된 운전기록장치 분석 결과 시속 28km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존 여아 사망사고 개요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도 운전자 송씨가 사망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겠지만, 스쿨존 구역 내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한 차량의 경우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차주에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처분은 스쿨존 내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8만원 처분을 구청에 요구하는 게 전부다.

이 때문에 단속권한이 있는 각 구청은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소한 스쿨존이나 어린이집, 학교 앞 도로 만큼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광주 5개 구청은 의지도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일보 8월30일자 7면〉

지난 2012년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민간 위탁에서 구청 직영화로 전환되면서 견인 차량도 구청별로 1~2대에 불과한데다 ‘표 떨어진다’는 우려에 단속 요청이 들어와도 기껏해야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5개 구청은 지난 2011년 총 2만6064대를 견인했으나 지난 2015년 361건, 올 8월 말 기준 17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스쿨존에서 총 10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19명이 부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0
해질녘 18:31

달출몰 21:57
달지름 10:59

감기 조심하세요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4/25	보성	구름많음	12/24
목포	구름많음	16/25	순천	구름많음	15/25
여수	구름많음	18/23	영광	구름많음	12/25
나주	구름많음	12/25	진도	구름많음	14/25
완도	구름많음	16/25	전주	구름많음	13/25
구례	구름많음	12/25	군산	구름많음	14/24
강진	구름많음	14/25	남원	구름많음	11/24
해남	구름많음	13/26	속산도	구름많음	18/22
장성	구름많음	12/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동남~동 0.5	북~북동 0.5
남부	동남~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서부	북동~동 2.0~4.0	북동~동 1.5~3.0
남부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11	10:14
	17:46	22:42
여수	12:11	05:40
	00:00	18:06

◇주간 날씨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	☀	☀	☀	☀	☀	☀
17/26	16/27	16/27	16/27	18/28	19/27	19/27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좋음

광주시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 추진

광주시가 날로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여름 광주는 36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를 겪었다. 전문가들은 녹지 부족과 고층건물 때문이라는 분석 〈광주일보 9월6일자 6면〉을 내놓았다”며 “무도산을 둘러싼 고층건물과 도심하천을 에워싼 건축물이 산과 시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막아 열섬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운 시장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고 실외기의 뜨거운 공기는 도시를 더 뜨겁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운 시장은 지역의 온도를 끌어내릴 수 있는 1도 낮추기 프로젝트 준비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과를 중심으로 에너지, 교통, 녹지, 생태 등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협업해 세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형태다.

시는 전체적인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되 가을부터 당장 착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스마트폰 흔들면 경찰이 달려갑니다”

북구, 이달까지 공공화장실 59곳 구조요청 시스템 설치

“공중화장실에서 위급할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경찰이 달려옵니다.”

광주시 북구는 관내 공중화장실 59개소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비콘’을 이달 말까지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콘’은 블루투스를 활용한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통신 이용 장치로, 스마트폰에 ‘빛고을 스마트 가로등’ 앱을 설치하고 위급 시 비콘 설치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4회 이상 누르면 미리 입력해 둔 보호자와 경찰에게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다.

북구는 이달 말까지 관내 59개 공중화장실에 90대의 비콘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근거리 무선통신망을 활성화한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위치를 알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화장실 내 비상벨을 누르면 건물 외부 경광등이 작동,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와주’ 안심 비상벨을 31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정민기자 kki@

지진 공포...경주행 수학여행 취소·연기 잇따라

광주·전남교육청, 초·중 17곳 일정 변경·연기 수렴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에 이어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자 ‘경주 지진 공포’에 휩싸인 광주·전남 초·중학교가 경주행 수학여행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학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20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학교 2개교 중 1곳이 경주행 수학여행을 취소했고, 1개교는 학부·학생과 협의 중이다.

전남지역에서는 하반기 경주행 수학여행이 예정됐던 16개 초·중학교 중 8개교가 장소를 변경하기로 했고, 2개교는 일정을 연기하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5개교는 여진 발생 여부와 현지 북구상황 등

을 검토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수학여행 연기, 취소, 장소 변경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동신중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2학년 학생 210명이 21~22일 1박2일 동안 부산·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려던 일정을 연기하고 다른 장소를 찾기로 했다.

김선규 광주동신중 교감은 “너무 불안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19일에도 강한 여진이 발생하자 학생·학부모·

교사들이 회의 끝에 장소를 변경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학교 입장에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위약금 등 문제가 발생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보성 북내초도 21~23일로 예정됐던 대구·경주행 수학여행 일정을 11월로 미뤘다.

앞서 시·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일정 연기나 장소 변경 검토를 주문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성황리 분양중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종합건설(주) 설계·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SH BUILDING

스케일이 다른 가치는 투자자의 특권이 됩니다!

남구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삼면이 확트여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 분양가

고객가치

효천내 천년나무APT LH행복주택 **현장**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 빚고울전남대병원 진월지구 화순 도곡

SH BUILDING 봉선동 →

문의 062)676-4006
010-5681-4015

*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